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을 위한 읽기'는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의 읽기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읽기 전략으로는 SQ3R이 있다.

SQ3R은 '훑어보기', '질문하기', '읽기', '암송하기', '재검토하기'의 다섯 활동으로 진행된다. 먼저 제목, 목차, 요약문 등을 훑어보면서 글의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예측한다. 그리고 훑어보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질문을 만든다. 다음으로,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 글을 읽는다. 읽은 후에는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기억하며 암송한다. 마지막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 읽은 내용을 재검토한다.

이 전략의 읽기 전 활동인 '훑어보기'와 '질문하기'는 능동적 읽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훑어보기는 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독자는 대강의 내용을 훑어봄으로써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내용을 찾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져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은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질문하기는 읽는 목적을 고려하여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질문을 활용하면, 답을 찾으며 읽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더 잘 선별할 수 있게 된다. 또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용에 집중하여 읽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질문하기의 효과는 타인이 질문을 제공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질문을 활용하여 읽으면 독자의 능동성은 더욱 강화된다.

SQ3R에 ㉠ 새로운 활동을 추가한 여러 전략들도 제시되었다. 그중 하나는 '관점 바꾸기'를 추가한 전략이다. '관점 바꾸기'는 글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자의 입장이라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글의 순서를 짤 것인지, 어떤 내용 전달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며 읽는 활동이다. 저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는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 내용을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다. 또 다른 전략에서는 '숙고하기'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글을 읽은 뒤에 자신의 배경지식과 이해한 내용을 연결하여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숙고하기'는 읽을 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활동이다.
② SQ3R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읽기 전략의 하나이다.
③ '학습을 위한 읽기'는 글의 내용 파악과 기억이 중요하다.
④ 글을 읽고 전체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은 SQ3R에 포함된다.
⑤ '관점 바꾸기'를 통해 글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다.

2.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글을 읽은 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되뇌어 본다.
② 읽기 전에 만든 질문에 대해 글에서 답을 찾아보며 읽는다.
③ 글의 목차를 보며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예측해 본다.
④ 저자가 의도한 대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글의 내용을 정리하며 읽어 본다.
⑤ 글의 내용 중 어떤 것을 글의 첫머리에 배치하면 좋을지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읽는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훑어보기와 관련된 실험에서 A그룹에는 제목이나 요약문을 훑어보는 방법을 알려 주고, 그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도록 하고, B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글을 읽은 후 두 그룹의 이해도는 비슷했지만, 훑어보기를 적용해 읽은 A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은 B그룹보다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
○ 질문하기와 관련된 실험에서 C그룹과 D그룹으로 나누고, 글을 읽고 개념을 중심으로 기억하도록 했다. C그룹에만 개념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한 후 그 질문을 활용해서 글을 읽게 하였다. D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2주 후에 글의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측정한 결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읽은 C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은 D그룹보다 우수했다.

① A그룹이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데 제목이나 요약문이 활용되었겠군.
② A그룹이 B그룹에 비해 읽는 데 걸린 시간이 짧았던 것은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졌기 때문이겠군.
③ C그룹에 제공한 질문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겠군.
④ C그룹에 독자가 질문을 만들어 글을 읽도록 한다면 독자의 능동성은 질문을 제공받았을 때와 유사하게 나타나겠군.
⑤ C그룹이 D그룹에 비해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용에 집중하여 읽었기 때문이겠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재산권 및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왜란과 호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다.

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하였다.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忠)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 두면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실학자 ㉮ 이익(李瀷)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天命),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星命), 시세(時勢)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造命)으로 운명을 나누었다. 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하고,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 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는 사회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 유길준은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民)에 주목하였다.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 인권 이외에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가 있고,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박영효는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國權)도 위태롭다고 보았다. 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는 국가의 노비 세습 금지령 공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의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 차별을 정당화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민권에 관한 개화파의 주장은 여러 상황과 맞물려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지만, 노비는 잔존했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이 전개되었다.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어 시작된 이 운동은 경제적 부를 쌓은 백정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결합하여 본격화되었고, 이후 대중의 호응을 이끌며 전국화되었다.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이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 차별이었던 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다. 그리고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분투하였다.

다른 사회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모색했던 형평 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의 억압이 이어지면서 위축되었고, 1935년에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의 개혁을 추구한 이 운동은 이후의 인권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노비제를 비판한 학자들의 인식 차이를, (나)는 노비제 폐지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를 제시하였다.
② (가)는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개화파들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가)는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특정 실학자의 견해를, (나)는 민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였다.
④ (가)는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여러 견해를, (나)는 민권 개혁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을 서술하였다.
⑤ (가)는 양반과 노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한계를, (나)는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민권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였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배층의 이념에 따라 행동한 노비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였다.
②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을 형상화하였다.
③ 양반이 노비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약자로 여기는 태도를 반영하였다.
④ 노비의 애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였다.
⑤ 굳센 의지를 지닌 노비의 행동을 부각하면서도 노비가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6. ㉮, ㉯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② ㉮는, ㉯가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③ ㉮는, ㉯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고 개혁을 논의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④ ㉯는, ㉮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여 개인의 발전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⑤ ㉯는, ㉮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7. (나)의 '형평 운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평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하였다.
② 백정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과 함께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③ 백정들이 처한 경제적 불평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중심이었다.
④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⑤ 일제의 억압으로 발생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대체로 노예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는 노예는 시민과 구별하여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았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功利)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이 제기되었다. 노예제하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은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① <보기>의 노예를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나)의 김윤식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겠군.
② <보기>의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나)의 박영효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③ <보기>의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와 (가)의 조선 시대의 노비는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겠군.
④ <보기>의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과 (나)의 독립 협회의 주장은 모두,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⑤ <보기>의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와 (가)의 이익의 주장은 모두,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

9.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 우리 반은 오래도록 염원하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② 학교는 학생회에 기획부, 총무부, 체육부 등을 두고 있다.
③ 그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두고 있다.
④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⑤ 그의 판단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이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예컨대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생성형 인공 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를 근거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허위·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사안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 재판소의 ⓑ실명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반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플랫폼과 인공 지능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 비대칭 상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론과 결부하여 구분하고 있다.
③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규명하고 있다.
⑤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1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투입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에 영향을 준다.
② 성분 표시 강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한 방식이다.
③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되므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
④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는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비판론이 제시한 공동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1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야 그 해악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해소된다고 본다.
② ㉠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보호하는 판결의 근거이고,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는 결정의 근거이다.
③ ㉡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허위 정보에 비해 진실한 정보가 과잉 공급되는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④ ㉡은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시민이 사회적 판단을 내릴 때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⑤ ㉠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3. ⓐ, ⓑ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을 생성형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하였다. 두 게시물은 모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 글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했다. 이후 '을'은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

(단,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법률은 적용하지 않음.)

① '갑'이 게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과장 광고이지만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② '갑'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갑'을 ⓐ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③ '을'이 작성한 글에서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군.

④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⑤ '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인데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 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 식으로 ⓑ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라플라스 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다.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이에 따라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

라플라스 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이 결과로 ㉠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실생활에서 라플라스 식과 관련된 사례로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다.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되며 이 잉크 방울은 종이에 ⓓ 도달한다. 라플라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구형의 잉크 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구형의 잉크 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잉크 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의 정도는 '오네소르게 수'로 표현된다.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와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지름에 의해 결정된다. 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알맞게 ⓔ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오네소르게 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가령 점도가 커서 오네소르게 수가 이 범위보다 크게 되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원치 않는 오염이 발생한다. 오네소르게 수에 영향을 주는 네 요인에 의해 오네소르게 수가 결정되면 이로부터 안정적인 인쇄 가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루는 것은 액체에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② 동일한 부피의 액체는 구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보다 표면적이 작다.

③ 호흡이 일어나려면 폐포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 압력의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④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다.

⑤ 잉크젯 프린터에서 노즐은 작은 잉크 방울을 합쳐 큰 잉크 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한다.
② 작은 기포와는 달리, 큰 기포에는 표면 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③ 접해 있는 두 기포 간에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기포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④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처음의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보다 작다.
⑤ 처음의 두 기포와 달리, 나중에 생성된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를 구입한 직후, 시험 삼아 문서 한 장을 인쇄했을 때, 빨간색 잉크와 파란색 잉크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되었다. 두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문서를 인쇄하니 빨간색 잉크가 노즐에서 나오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빨간색 잉크가 구입했을 때보다 더 끈적끈적해서, 첨가제를 넣어 끈적거림의 정도를 조절하여 다시 인쇄하였다. 이 시점에 파란색 잉크는 구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이후 세 달이 더 지난 후에도 문서를 인쇄해 보았다.

(단, 두 잉크를 내보내는 노즐은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다.)

① 구입 당시의 빨간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와 달리,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는 대략 0.1에서 1.0 사이에 있었겠군.
② 빨간색 잉크에 첨가제를 넣어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첨가제를 넣어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가 더 커진 것이겠군.
③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밀도를 두 배로 높이고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인다면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는 변함이 없겠군.
④ 구입 당시와 달리, 두 달이 지난 후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는 인쇄의 적정 범위를 벗어났겠군.
⑤ 구입 후 다섯 달이 지났을 때, 파란색 잉크가 구입할 당시의 밀도와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으나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하였다면 파란색 위성 잉크 방울이 생성될 수 있겠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올라오는
② ⓑ: 나타낼
③ ⓒ: 이루어진
④ ⓓ: 다다른다
⑤ ⓔ: 맞춤으로써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들 천달이의 안부를 모르는 양 생원은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천달이뿐 아니라, 두칠이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묻어 들었고, 희뜩희뜩 눈 잎사귀가 휘날려 왔다. 그리고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모량댁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방 안에 한 방 피를 토해 놓고 쓰러지면서도 모량댁은 곧장 두칠이를 목메어 불렀다는 것이다.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갑분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

함박눈이 마을을 덮었다. 하루는 또 총을 멘 순경 한 사람과 면 서기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 지난봄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아무개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눈에 묻힌 골무샅*을 돌아다녔다. 그런 일이 있은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 동식이와 수만이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 오고 얼마 후에 천달이는 전사하여 유해만 돌아온다. 천달이의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우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밭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두 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 삼바우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으으윽! 크게 트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니가?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낀데…… 보자, 동식이캉 같이 오는 거 아니가? 그렇잖으면 ㉡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둘인강? 삼바우는 두 눈을 곧장 껌벅거린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도 수만이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이크!"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몇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달이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도 마찬가지고,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갈라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우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

[A]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쾅! 내리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옳지!"

삼바우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렸다.

"좋은 수고말고!"

얼른 닻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닥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우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배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닫는다.

ⓑ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만 것이다.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부리나케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함을 지른다.

"여보! 아 여보오——"

"여기 탈 사람 있소!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우는 입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씩 핥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 콧방귀를 팡 뀌어 준다.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우쨌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 끼가?"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주먹으로 삿대질을 해쌓는다.

삼바우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랍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나? ㉤ 흥!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 골무샅 : '골목'의 사투리.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왔다.
②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서는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③ 모량댁은 두칠이를 만나지 못한 채 슬퍼하며 세상을 떠났다.
④ 마을에 온 양복쟁이는 집을 물어 가며 젊은이들을 찾아다녔다.
⑤ 갑분이는 두칠이 동생들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다.

19. ⓐ, ⓑ의 서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중심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② ⓐ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함박눈이 마을을 덮었던 그 겨울과 유사하다.
③ ⓑ는 적대적 인물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④ ⓑ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인의 노력으로 해결된다는 점에서, 중심인물의 능동성이 부각되는 나룻배와 차이가 있다.
⑤ ⓐ의 시기에, ⓑ는 적대적 인물에 의해 끊어져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된다.

20. [A]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안 돼!'에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②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또렷하게' 보인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③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 것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④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⑤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희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2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이런 서술은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① ㉠ :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며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하여, 떠올린 대상에 대한 인물의 유대감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② ㉡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며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데'로 표현하여, 인물의 공간 감각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③ ㉢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④ ㉣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팡 뀌'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의기양양해 하는 인물의 심정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⑤ ㉤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오스스' 떠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자기 행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과 불안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해의 꽃잎을 ㉠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소원을 빌기 위해 태워 올리는 종이.

(나)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이리라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이리라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이리라**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에 **귀기울**였으리라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맵게 **스며들었으리라**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 겨우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 봄에 **이르렀을까**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

- 김기택, 「나무」 -

(다)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은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오니까. **등이 곱**으시고 **숨이 차**신데도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을 뵈오니, 손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맺으리라고 생각하오니, 희고 희신 나룻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답도소이다.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거니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옵니다. 빛깔에 취할 수 있음은 빛이 어느 빛일는지 청춘에 맡길 것일는지도 모르겠으나 쇠년(衰年)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심을 뵈오니 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시옵니다.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 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보실 것이매 그만치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옵니다.

노인의 고담한* ⓑ 그늘에 어린 자손이 희희(戲戲)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닝거린다는 것은 여년(餘年)과 해골을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하옵니다.

㉤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다. 만일 노인 백 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히고 뜰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나이다.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 꽃과 주검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방히 끓는 **정염**이 식고 호화롭고도 홧홧한 부끄럼과 건질 수 없는 괴롬으로 수놓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幽閑)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주검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는 노경*에서일까 합니다.

- 정지용, 「노인과 꽃」 -

* 노래 : '늘그막'을 점잖게 이르는 말.
* 고담한 : 예스럽고 맑은 느낌이 있는.
* 노경 : 늙음의 때 또는 노년의 경지.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황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그려 내고 있다.
③ 계절의 흐름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④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리이리라'에는 시련을 견뎌 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② '스며들었으리라'에는 '나무'의 내부로 들어온 모진 기운이 '수액'에 깊이 배어들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③ '익어갔으리라'에는 바깥의 힘이 매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부정적 결과를 맺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④ '이르렀을까'에는 시련이 수많은 '잎과 꽃'이라는 성취에 선행되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⑤ '흘러다니고 있다'에는 '나무'의 '무늬'에서 물 속 생명체의 움직임 같은 운동성이 느껴진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나가는 데 기여한다.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

① (가)에서 '나'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황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그 나무'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이군.
② (나)에서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을 보고 그 표면을 관찰한 결과이군.
③ (가)의 화자는 '늦된 나무'의 '멍울'을 보고 연민의 정서를, (나)의 화자는 '나이테'의 '흔적'을 보고 나무에서 작용한 힘들에 대한 지각을 드러낸 것이군.
④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푸릇한 잎새'로,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푸르고 진한 빛'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⑤ (가)의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의 '저 나무'를 향한, (나)의 '귀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것이군.

25. (다)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등이 곱'고 '숨이 차'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이 공들여 꽃을 가꾼다는 점에서, 그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군.
② 나이를 먹고도 '누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은 오로지 꽃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정'함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군.
③ 직접 심은 꽃나무에 맺힐 '꽃봉오리'를 노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한 계절'을 보람 있게 여기고 있군.
④ '꽃이 난만'하면 '우리'는 그 꽃을 보며 즐기겠지만 노인은 슬퍼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이 끓는 '정염'에서 벗어난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있군.
⑤ '노년'이 '고고'한 '학'과 같은 덕을 지닌 시기라는 점에서, 노인이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군.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여느 꽃나무'들이 성취로 빛나는 동안 '그 나무'는 멈칫거리고 있던 지체의 시간이다.
② ㉡은 화자가 '그 나무'에 '꽃불 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다.
③ ㉢은 나무의 안으로 '찾아 들어'온 '햇빛과 공기들'의 움직임이 멈추었던 기다림의 시간이다.
④ ㉣은 '딱딱하게 오므'렸던 '모든 틈과 통로'가 다시 '드나들며 숨쉬'는 생동의 시간이다.
⑤ ㉤은 '꽃'의 피고 지는 속성이 주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복의 시간이다.

27.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늦된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는 '노인'이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이유이다.
② ⓐ는 '늦된 나무'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③ ⓐ는 '늦된 나무'가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 하는, ⓑ는 '노인'이 매년 달라지려 하는 목적이다.
④ ⓐ는 '늦된 나무'의 꽃철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는 '노인'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이다.
⑤ ⓐ는 '늦된 나무'가 부끄러움을 자각하기 위한, ⓑ는 '노인'이 자신의 남은 삶을 희생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에 길동이 도적을 데리고 분부하여 왈,

"내 금일 절에 가 ㉠ 여차여차하여 모든 중을 결박하거든 너희 등은 그때를 당하여 일을 행하라."

하니, 모든 도적이 영을 기다리더라. 이때 길동이 수십 종자를 데리고 해인사에 올라가 노승더러 왈,

"전에 백미를 보내어 술과 밥을 갖추라 하였더니 어찌하였는고?"

승려들이 고왈,

"이미 준비하였사오니 처분을 내리소서."

길동 왈,

"전에 들으니 이 절 뒤의 풍경이 거룩하다 하니, 너희와 더불어 종일 즐기고자 하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모이라."

하니, 승려들이 어찌 이런 흉계를 알리오. 상하노소 없이 다 절 뒤 시내에 벌여 앉으니, 길동이 차례로 권하여 즐기며 웃고 잡담하다가 가만히 소매로부터 모래를 내어 입에 넣어 씹더니, 모래 깨무는 소리에 승려들이 놀라 사죄하거늘, 길동이 왈칵 성내어 왈,

"너희 등이 나를 쉬이 알고 음식의 부정함이 이렇듯 하니 통탄치 아니하리오."

말이 끝나자 모든 승려를 일시에 다 결박하라 하며 호령하되,

"내 본관에 들어가 이 연유를 고하고 각별히 엄벌하리라."

하니, 승려들이 몹시 놀라 넋을 잃고 애걸할 따름이로다.

이때에 도적들이 절 어귀에 매복하여 있다가 모든 승려 결박함을 듣고 달려들어 재물을 제 집 재물같이 실어 나르니, 승려들이 다만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일러라.

절의 나무하던 놈이 작은 방에서 그릇을 옮겨 싣다가, 도적이 우마를 가지고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재물을 훔쳐 가는 광경을 보니라. 담을 넘어 도망하여 합천 읍내에 들어가 도적 수백 명이 와 절 재물을 훔쳐 가는 ㉡ 사연을 고하니, 합천 군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관에 딸린 관리들과 읍의 노소 인민을 징발하여 급히 ⓐ 해인사로 몰아가니라.

[A]

이때 도적이 재물을 훔쳐 우마에 싣고 산골짜기 소로로 가려 하거늘, 길동이 이르되,

"조금도 의심치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하니, 도적들이 질색 대왈,

"관군이 곧 가까이 쫓아오면 잡힐까 하나이다."

길동이 크게 웃고 이르되,

"너희는 젖내 나는 어린아이라. 어찌 나의 깊은 소견을 알리오. 두려워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내 관군을 북쪽으로 가게 하리라."

도적들이 이 말을 듣고 남쪽 대로로 가거늘, 길동이 도로 법당에 들어가 중의 장삼을 입고 송낙을 쓰고 높은 뫼에 올라 보니 관군이 몰려 오거늘, 크게 소리하여 왈,

"저 관군은 도적이 북으로 갔으니 북쪽 소로로 쫓아가 잡게 하라."

하고 북쪽 소로를 가리키거늘, 관군이 그리로 쫓아가니라.

길동이 그제야 산에서 내려와 가만히 술법을 행하여 먼저 마을 어귀에 돌아오니, 이윽고 도적이 수천 우마를 몰고 들어와 길동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 왈,

"장군의 신기한 술법과 거룩한 재주는 귀신도 측량치 못하리로소이다."

길동이 웃어 왈,

"대장부 그만한 재주 없으면 어찌 장사라 칭하리오."

하고 잔치를 즐긴 후에, 훔쳐 온 재물을 헤아려 본즉 수만금일러라. 모든 도적에게 각기 물품을 내려 주고 마을 어귀에 별호를 활빈당이라 칭하고 하령하여 왈,

"조선 팔도로 다니며 불의한 재물을 탈취하고, 가난하여 의지할 곳 없는 자거든 재물 주어 구제하되 성명을 통치 말고, 열읍 수령 중 백성을 착취하여 얻은 자의 재물을 탈취하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팔도에 혼란을 초래한 길동은 병조 판서를 제수받아 서자로서의 한을 풀고, 활빈당과 함께 조선을 떠난다.

차설. 길동이 대의를 두고 일일 연습하니, 무예가 정숙하여 마군이 십만이고 보군이 십만일러라. 일일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 이르되,

"내 들으니 율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다 하니, 여러 군사들의 뜻이 어떠하뇨?"

장수들이 응하여 왈,

"소장의 **평생 소원**이로소이다. 빨리 싸워 성공케 하옵소서."

길동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물밀듯 쳐들어가니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이 없더라.

각설. 수월 만에 칠십여 성을 항복받고 율도국 왕에게 격서를 전하니라. 율왕이 뜯어 보니 하였으되,

"조선국 활빈당 장수 홍길동은 율왕에게 말하느니,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 이러하므로 **성탕**이 걸을 치시고 **무왕**이 주를 치시니, 예부터 정벌이 천리에 떳떳한 일인 고로, 내 의병을 일으켜 한 북소리에 칠십여 성을 항복받아 위엄을 뵈나니, 율왕은 빨리 나와 좌우를 결단하라. 만일 **항복**하면, 조상 향화를 끊기게 하지 아니하고 자손까지 부귀를 누리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옥석을 구별 않고 모두 처치할 것이니, 재삼 생각하여 하라."

하였더라.

왕이 **문무제신**을 모아 의논하여 왈,

"**무명 소적**이 이렇듯 방자하니, 뉘 능히 내 근심을 덜리오?"

하되, 제신이 아뢰어 왈,

"대왕이 한때의 분을 일으켜 대적했다가 도리어 패하오면 후세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오려니와, 성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아니하시면 제 스스로 물러갈까 하나이다."

왕이 크게 노하여 왈,

"적병이 ⓑ 성 아래까지 미쳤거늘 어찌 저희 스스로 물러가기를 기다리리요."

하고 군사를 징발하여 친히 대적하더라.

-「홍길동전」-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8.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포함되겠군.
② ㉠에는 길동이 모래를 깨무는 것이 포함되겠군.
③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는 것이 포함되겠군.
④ ㉡에는 도적들이 절에 들이닥친 일이 포함되겠군.
⑤ ㉡에는 도적들이 재물을 실어 나른 일이 포함되겠군.

29.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와 달리,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다.
② ⓑ는 ⓐ와 달리,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③ ⓑ는 ⓐ와 달리, 문서로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④ ⓐ와 ⓑ는 모두, 외부인이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 하고 있다.
⑤ ⓐ와 ⓑ는 모두, 구성원 사이에 위계가 없이 평등한 사회이다.

30. 다음은 수업 활동의 일부이다.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속임수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속이는 이, 속는 이, 속이는 의도, 속이는 방법, 속인 결과'가 포함돼요. '속이는 방법'은 '속이는 이'가 '속는 이'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도록 조작하는 것을, '속인 결과'는 '속이는 의도'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속임수담이 나타난 장면인 [A]에 대해 이해한 바를 말해 볼까요?

학 생: _____

선생님: 네, 맞아요.

① 길동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려 하는 것은 '속이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② 길동이 승려의 차림으로 높은 곳에서 관군을 향해 소리친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③ 길동이 도적들의 도주 방향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④ 길동이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⑤ 길동의 속임수에 관군이 넘어가 도적들과 재물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른 것은 '속인 결과'로 볼 수 있어요.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율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다. 이 사건은 이본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왕을 몰아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이자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① 길동이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는 율도국 정벌을 단행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안정적인 나라를 침략하여 욕망을 실현하려 함을 알 수 있군.
② 길동이 정벌에 대한 여러 군사들의 뜻을 묻자 장수들이 '평생 소원'이라 응하는 것에서, 주인공의 욕망이 공동체의 소원에 부응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③ 길동이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며 '성탕'과 '무왕'의 일을 인용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내세운 정벌의 명분이 역사적 사례와 동격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길동이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은 '천명'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율도국 왕에게 주장한 것에서, 주인공의 정벌에 하늘의 뜻이라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길동이 율도국 왕에게는 '무명 소적'이지만 '문무제신'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에서,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율도국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얼음 위에 댓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
얼음 위에 댓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A]
정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가 발하도다 [B]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하도다 소춘풍하도다 ┘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C]
어기신 이가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 경경 고침상 :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
* 소춘풍 : 봄바람을 희롱함.

(나)

시름을 꺼내 들어 얽어 매고 둘러 묶어
푸른 강물에 풍덩 들입다 띄워 두면
자연히 이리저리 떠다니다 절로 삭으리라

- 김수장 -

(다)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칡넝쿨이 되어
그 나무에 그 칡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오 풀어 옳게 감아 얽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굽이 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 뒤틀어져 감겨 있어
동 섣달 바람 비 눈 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있으랴

- 이정보 -

32. [A]~[C]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창문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임에게 전달하고 있다.
③ [C]에서 화자는, 임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변함없는 사랑을 강요한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하고 있다.
④ [A]와 달리 [C]에서 화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해 홀로 남겨진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⑤ [A]에서 화자는 춥더라도 만족할 수 있음을, [B]에서 화자는 봄을 맞고도 만족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인 '꺼내 들어 얽어 매고 둘러 묶어'를 통해 행동의 연속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색채 표현인 '푸른'을 통해 시적 공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있다.
③ 음성 상징어인 '풍덩'을 통해 대상의 무게감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④ 상황을 가정한 표현인 '띄워 두면'을 통해 대상을 화자와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표현인 '이리저리'를 통해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가들은 모두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각 화자는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고,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하여 정서를 강화한다. 또 인간 간의 관계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에 빗대기도 하는데, 여기에 정보를 덧붙이거나 특정한 상황을 추가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한다.

① (가)에서 '임'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게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시간의 흐름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한 것이군.
② (나)에서 시적 대상을 '강물'에 '떠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형상화한 것이군.
③ (다)에서 '칡넝쿨'을 만물이 소생하는 '삼사월'의 것이라고 제시한 것은, 시적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덧붙여 자신이 소망하는 상태를 강조한 것이군.
④ (가)에서 '소춘풍'하는 '도화'와 대비되는 것으로, (다)에서 '나비'를 감는 '납거미'에 빗대는 것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한 것은, 특정한 상황으로 임과 하나가 된 현재를 강조한 것이군.
⑤ (나)에서 '시름'이 '절로 삭'을 것이라고, (다)에서 '나'가 '칡'이 되어 '임'과 계속 '감'겨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보여 준 것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공'과 '콩'의 소리를 듣고 두 단어의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두에서 실현되는 'ㄱ'와 'ㅋ'가 의미를 구별해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 한다. 그럼 '가구'에서 발음되는 두 'ㄱ'는 같은 소리일까? '가구'의 첫음절의 'ㄱ'는 성대의 울림이 없는 무성음 [k]이고, 둘째 음절의 'ㄱ'는 앞 모음의 영향을 받아 성대의 울림이 있는 유성음 [g]로 실현된다. 하지만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 여부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k]와 [g]를 하나의 음운 'ㄱ'로 인식한다. 이처럼 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소리들을 변이음이라 하며,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출현 위치가 서로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예컨대 파열음 'ㅂ, ㄷ, ㄱ'는 어두에서는 무성음 [p, t, k]로 실현된다. 반면 모음과 모음 사이, 비음 'ㅁ, ㄴ, ㅇ'과 모음 사이, 유음 'ㄹ'와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음 [b, d, g]로 실현된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에도 나타난다. 예컨대 '옷'은 조사가 결합되는 환경에서 '옷+이[오시]', '옷+도[온또]', '옷+만[온만]'처럼 '옷'의 소리가 [옷], [옫], [온]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을 이형태라 한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의미 차이를 만들지 않고,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며, 나타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한 음운의 변이음들을 하나의 동일한 음운으로,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을 하나의 동일한 형태소로 인식한다. 한편,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은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뉜다. 예컨대 '빗다'의 '빗-'에 비음 외의 자음이 결합되면 [빋], 비음이 결합되면 [빈]으로 교체된다. 이는 국어에서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발음되고, 자음 'ㅂ, ㄷ, ㄱ'가 'ㅁ, ㄴ'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는 자동적 교체이다. 반면, '(허리가) 굽다'의 '굽-'에 모음 '-어'가 결합될 때 [구버]가 되는 것처럼, 국어에서 'ㅂ'와 모음이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굽다'의 '굽-'이 동일한 환경에서 [구워]의 '구우'로 교체되는 것은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구'의 두 'ㄱ'는 하나의 동일한 음운이다.
②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준다.
③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④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⑤ 교체는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료 1>은 음운 'ㅂ, ㄷ, ㄱ'가 환경에 따라 실현되는 소리가 달라지는 단어들이고, <자료 2>는 종성에 'ㅂ, ㄷ, ㄱ'를 갖는 형태소들이 환경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교체의 예들이다.

	<자료 1>	<자료 2>
㉠	바지, 후보	○ 잡+아[자바], 잡+는[잠는], 잡+고[잡꼬] ○ 춥+어[추워], 춥+은[추운], 춥+고[춥꼬]
㉡	더위, 온도	○ 닫+아[다다], 닫+는[단는], 닫+고[닫꼬] ○ 듣+어[드러], 듣+는[든는], 듣+고[듣꼬]
㉢	거위, 인고	○ 먹+어[머거], 먹+는[멍는], 먹+고[먹꼬]

① ㉠의 '후보'의 [ㅂ]와 달리, ㉠ '바지'의 [ㅂ], ㉡ '온도'의 [ㄷ], ㉢ '인고'의 [ㄱ]는 모두 무성음으로 실현된다.
② ㉠의 '잡+아[자바], 잡+는[잠는], 잡+고[잡꼬]'에서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리 나타난 '잡'과 '잠'은 서로 다른 형태소이다.
③ ㉡의 '더위'와 ㉢의 '거위'에서 'ㄷ'와 'ㄱ'는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고, ㉢의 '먹'과 '멍'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④ ㉡에서 [단는]의 '단', [드러]의 '들', [든는]의 '든'은 모두, 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⑤ ㉢의 [멍는]의 '멍', ㉠의 [추운]의 '추우'는 모두, 비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37. ㉠~㉤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 건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

①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은 ㉠, ㉡이다.
②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를 포함한 문장은 ㉡, ㉢이다.
③ 대등적 연결 어미로 겹문장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④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진행상을 나타낸 문장은 ㉠, ㉣이다.
⑤ 필수적 부사어는 ㉠~㉣ 모두에 한 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자료>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의문문을 실현하는 종결 어미와 보조사가 각각 달리 나타났다. '누', '엇던' 등 의문사가 사용된 설명 의문문에서는 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뇨'가, 체언 바로 뒤에는 보조사 '고'가 결합하였다. 반면,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녀'와 보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한편, 종결 어미 '-ㄴ다'는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서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가 쓰였다.

㉠ [중세 국어] 네 스승이 누고
[현대 국어] 네 스승이 누구인가?
㉡ [중세 국어] 阿難ᄋᆡ 마리 외디 아니ᄒᆞ녀
[현대 국어] 아난의 말이 그르지 아니하느냐?
㉢ [중세 국어] 그듸 엇던 사ᄅᆞᄆᆞᆫ다
[현대 국어] 그대 어떤 사람이냐?

① ㉠: 보조사 '고'가 체언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군.
② ㉠: 보조사 '고'가 의문사 '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③ ㉡: 종결 어미 '-녀'가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군.
④ ㉢: 종결 어미 '-ㄴ다'가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⑤ ㉢: 종결 어미 '-ㄴ다'가 2인칭 주어가 실현된 의문문에 사용되었군.

39. <자료>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료>

어떤 말을 의미를 고려하여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예컨대 '볶음밥'은 '쌀밥에 여러 재료를 볶아 만든 음식'이라는 의미에 따라 먼저 어근 '볶음'과 어근 '밥'으로, '볶음'은 다시 어근 '볶-'과 파생 접사 '-음'으로 분석되므로 ㉠파생 후 합성이 된 단어이다. 이 외에도 ㉡파생 후 파생, ㉢합성 후 파생, ㉣합성 후 합성의 방식으로 단어가 형성될 수 있다.

ⓐ 놀이마당: 여럿이 모여 노래하거나 춤추며 노는 자리.
ⓑ 콩나물국: 콩나물을 넣고 끓인 국.
ⓒ 거짓말투성이: 온통 거짓말뿐인 것.
ⓓ 헛소리꾼: 실속이 없고 미덥지 아니한 말을 잘하는 사람.
ⓔ 웃음꽃: 꽃이 피어나듯 환하고 즐겁게 웃는 웃음.

① ⓐ는 '놀이'와 '마당'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② ⓑ는 '콩나물'과 '국'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③ ⓒ는 '거짓말'과 '-투성이'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④ ⓓ는 '헛-'과 '소리꾼'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⑤ ⓔ는 '웃음'과 '꽃'으로 분석되므로 ㉣에 해당하는군.

[40~43] (가)는 라디오 방송이고, (나)는 (가)를 청취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는 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식 한 입'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을 통해 언제든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상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장비에 대해 전문가를 모셔서 알아보려 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전문가: 안녕하세요, □□ 대학교에서 기상학을 연구하는 이○○입니다.

진행자: ⓑ교수님, 기상 정보를 수집하려면 관측부터 해야겠지요?

전문가: 네, 맞습니다.

진행자: 관측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문가: 지상에 위치한 관측 장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중 'AWS'는 지상 부근의 다양한 대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지상에서만 관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 맞습니다. 지상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상공은 '기상 항공기'를 활용하여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태풍, 집중 호우, 폭설 등 기상 위험 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죠.

민트초코	기상 항공기에 사람은 몇 명이나 탈 수 있나요?

진행자: ⓒ민트초코 님이 탑승 가능한 인원에 대해 물으시네요.

전문가: 국내 도입 기종은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약 6시간 비행 가능합니다. 기상 항공기 소개 영상이 있는데, 라디오 방송이라 보여 드릴 수가 없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 기상 연구소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또 소개해 주실 관측 장비가 있을까요?

전문가: '레윈존데'라는 장비는 기상 항공기가 올라갈 수 없는 35 km 상공까지 올라가며, 하루에 2~4회 기온, 습도 등을 관측합니다.

새싹	와, 35km 상공까지 어떻게 올라가나요?

진행자: 새싹 님이 어떻게 35 km까지 올라가는지 물으시네요.

전문가: (양손으로 둥근 모양을 만들며) 구상의 기구에 매달려 올라갑니다.

진행자: 지금 교수님께서 손으로 공 모양을 만드셨는데, 구상은 동그란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가: 네, 풍선 형태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 위성인 '천리안2A호'가 지구를 10분마다, 우리나라를 2분마다 관측하고 있습니다.

둥이맘	많은 장비를 활용하니 수집되는 자료 양도 엄청나겠네요.

햇살가득	수집된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행자: 수집된 자료에 관한 댓글들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관측 장비가 많으니 자료 양도 많을 터인데,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문가: 정말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수집됩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활용됩니다. 자료를 슈퍼컴퓨터로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전송하면, 슈퍼컴퓨터는 여러 수식을 활용해 예상 일기도를 생산합니다. 한편 수집된 자료는 세계 기상 통신망으로…….

진행자 : 정규 방송을 마칠 시간이라 세계 기상 통신망에 대한 내용은 온라인 방송에서 이어 갈까 하는데, 교수님 괜찮으실까요?

전문가 : 네, 그럼요.

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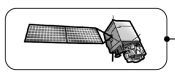
(나)

민트초코의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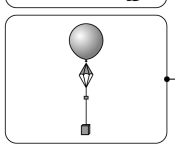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어제 '상식 한 입' 들으셨나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정규 방송과 온라인 방송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규 방송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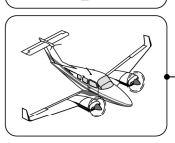
○ **관측 장비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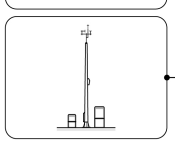
우리나라를 2분마다 관측하는
천리안2A호



35km 상공까지의 기온, 습도 등을 관측하는
레윈존데



기상 위험 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상 항공기



지상 부근의 다양한 대기 상태를 관측하는
AWS

〔참고〕 기상 항공기 소개 동영상



출처 : △△ 기상 연구소 누리집

○ **분석 장비 - 슈퍼컴퓨터**
많은 양의 자료를 여러 수식으로 분석해 일기도를 생산하는 장비
더 알고 싶다면? 클릭! ☞ **슈퍼컴퓨터 관련 정보 바로가기** (◇◇센터 누리집)

2. 온라인 방송의 내용 - 세계 기상 통신망
180여 개국에서 보내온 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배포하는 통신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40.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진행자는 도입부에서 음악을 배경으로 청취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② 전문가는 청취자의 질문에 답변하며 청취자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전문가의 손동작을 말로 설명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진행자는 서로 관련 있는 댓글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전문가에게 제시하고 있다.
⑤ 진행자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정보를 요약해서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41. 다음은 (가)에 대한 청취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청취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취자 게시판

수정과 : 기상 박물관에 체험 학습을 다녀와서 기상 정보에 관심이 생겼는데, 방송을 통해 기상 관측 장비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어요. 다만 AWS, 레윈존데 같은 장비들 이름이 어렵네요.
별님달님 : 지상뿐 아니라 상공에서도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그런데 해양 기상을 관측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바다는 어떤 장비로 관측하는지 궁금해 도서관에서 찾아보려고요.
봄날 : 천리안2A호는 어떤 종류의 위성인지 궁금하네요. 기상 관측 위성에도 종류가 있다고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① '수정과'는 진행자가 도입부에 언급한 방송의 주제에 주목하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방송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② '수정과'는 방송에서 제시한 기상 관측 장비의 명칭에 주목하여, 표현의 정확성을 지적하고 있다.
③ '별님달님'은 관측 장비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주목하여, 향후 관측 장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④ '별님달님'은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은 내용에 주목하여, 관측 장비와 관련한 정보의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
⑤ '봄날'은 방송에 언급된 기상 관측 위성에 주목하여, 자신의 배경지식과 방송 내용의 차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2.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u>않은</u> 것은?

① (가)에서 라디오 매체의 제약으로 제시하지 못한 자료를, (나)에서 동영상으로 제시해야겠어.
② (가)에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 다루기로 언급한 내용을, (나)에서 정규 방송의 내용에 이어서 제시해야겠어.
③ (가)에서 전문가가 소개한 관측 장비들을, (나)에서 관측 주기를 기준으로 배열한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④ (가)에서 제시된 분석 장비와 관련된 내용을, (나)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와 함께 제시해야겠어.
⑤ (가)에서 전문가가 관측 장비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나)에서 관측 장비에 대한 설명에 활용하여 제시해야겠어.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려'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기상 정보와 관련한 장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 : '-지'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자신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③ ⓒ : '-(으)시-'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질문의 주체인 민트초코를 높이고 있다.
④ ⓓ : '터'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관측 자료의 양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⑤ ⓔ : '이'를 사용하여 전문가가 자료 분석에 활용되는 슈퍼컴퓨터를 가리키고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4~45] (가)는 문화 탐구 동아리 학생들의 화상 회의이고, (나)는 학생들이 작성한 영상 제작 계획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은찬 : 안녕. ㉠ 다들 내 목소리 잘 들려?

이진, 고은 : 안녕. 잘 들려.

채팅	대훈: 나는 지금 독서실이라 채팅으로만 참여할게.

은찬 : 알겠어. 동아리 활동 발표회에서 상영할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한 영상 제작을 위해 두 번째 회의 시작할게.

귓속말	대훈→은찬 ㉡ 내가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회의록 보내 줘서 고마워. 은찬→대훈 ☺

이진 : 먼저 세계 기록 유산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

채팅	대훈: ㉢ 유네스코 누리집에 관련 내용이 있어. 모두에게 화면을 공유할게. 대훈 님이 전체에게 화면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진 : 누리집을 보니, 기록 유산은 인류의 지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네. 이 내용을 보여 주자.

고은 : 응. 기록 유산 보존이 왜 필요한지도 담으면 좋겠는데?

은찬 : 기록 유산은 자연재해 등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어서 보존이 필요하대.

고은 : 은찬이가 말한, 기록 유산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이 영상에 드러나면 좋겠어.

채팅	대훈: 맞아. 기록 유산의 특징을 잘 드러내야 할 것 같아.

은찬 : 대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대훈 : (㉣ 손가락들을 움직여 타이핑하는 시늉을 함.)

은찬 : 아, 이미 채팅을 남겼구나. 앞으로 채팅창 잘 살펴볼게.

채팅	대훈: 고마워.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세계 기록 유산의 여러 가지 등재 기준에 대해서도 조사했어.

이진 : 그래. 기준이 여러 개면 주요 기준을 강조해서 보여 주는 게 좋겠어.

은찬 : 응.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해 말해 볼까?

고은 : 이진아, ㉤ 네가 나한테 출력해 준 자료 보는 중인데, 여기에 관련 내용이 있어. 이거 파일로 갖고 있으면 모두에게 보내 줘.

이진 : 응. 지금 보낼게.

채팅	이진 님이 전체에게 파일을 전송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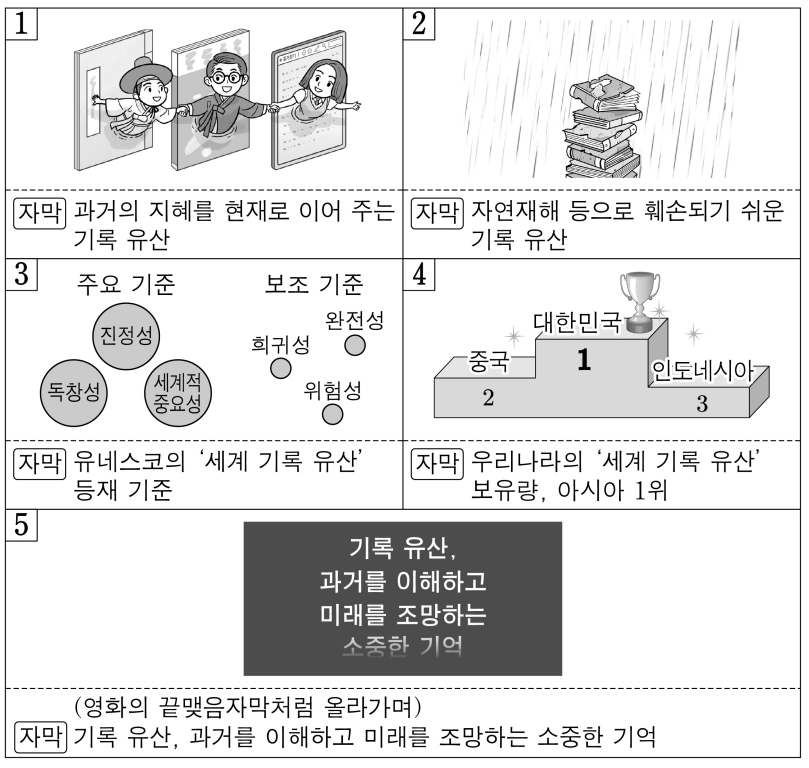
은찬 :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가 세계 기록 유산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네. 아시아에서 제일 많대. 이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작하자.

채팅	대훈: 마지막 장면은 자막만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게 어때?

고은 : 좋아. 그렇게 하면서 영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도록 편집하면 좋겠어.

은찬 : 응.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다들 수고 많았어.

(나)



44.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효율적인 온라인 회의 진행을 위해, 모두에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② ㉡: 회의의 진행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귓속말 기능을 활용해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③ ㉢: 자신이 찾은 내용을 모두에게 보여 주기 위해, 관련 누리집 주소를 채팅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 음성 언어로 전달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몸짓으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있다.

⑤ ㉤: 인쇄물의 형태로 받은 자료의 내용을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파일 전송을 자료 제공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45. (가)를 반영하여 (나)를 구성했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기록 유산을 통해 인류의 지혜가 계승됨을 보여 주자는 이진의 의견을 반영해, (나)에서 여러 시대의 인물이 손을 잡은 장면을 구성했다.

② 기록 유산의 훼손 가능성을 제시하자는 고은의 의견을 반영해, (나)에서 기록 유산의 역사적 의의를 시각화한 장면을 구성했다.

③ 주요 기준을 강조하자는 이진의 의견을 반영해, (나)에서 주요 기준이 적힌 원을 보조 기준이 적힌 원보다 크게 제시한 장면을 구성했다.

④ 우리나라에 세계 기록 유산이 많음을 부각하자는 은찬의 의견을 반영해, (나)에서 순위가 적힌 시상대가 포함된 장면을 구성했다.

⑤ 영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게 하자는 고은의 의견을 반영해, (나)에서 영화의 끝맺음과 유사하게 장면을 구성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